지상백고좌

서울 도안사 회주 선묵 혜자 대종사

“기도하고 수행하라…삶이 행복해진다”



선묵 혜자 대종사는… 1964년 청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스님은 통도사 강원에서 경학을 연찬하고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수료했다. 서울 도선사 주지와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 사서실장, 불교신문 사장, 중앙종회의원, 군종특별교구장 등을 역임했다. 2006년 ‘108산사순례기도회’를 결성한 뒤 현대한국불교사에 전무후무한 불교신행문화를 이끌었다. 서울 도안사 회주로서 지금도 대중들과 함께 기도정진하고 있다.

충북 충주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자란 어린 소년은 스님이 된 사촌 형님의 추천으로 수행자의 길에 나섰다. 부모님 곁을 떠나 절로 가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스님이 되어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말에 설레는 마음도 컸다.

버스와 기차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한 서울은 엄청났다. 전에 보지 못한 도시 풍경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서울에 도착해 또 버스를 몇 번 더 탄 끝에 삼각산 도선사에 도착했다. 1964년의 일이다.

곧바로 행자생활이 시작됐다. 행자를 잘하면 ‘도인(道人)’을 만날 수 있다는 선배스님들의 격려에 힘을 냈지만 고된 생활에 수시로 코피를 쏟았다. 밥 짓고, 밭 매고, 나무를 하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저물었다. 녹초가 되어 새우잠을 자고 나면 다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부모님이 그리워졌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팔만사천 번씩 들었다.

어린 나이에 출가한 행자가 안쓰러웠는지 ‘도인’ 은사스님은 격려 법문을 자주 해줬다. 특히나 〈부모은중경〉에 대한 말씀은 가슴으로 다가왔다.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정신을 차리고 공부에 집중했다.

환갑이 넘은 은사스님은 할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아침 일찍 일어나 예불 올리는 것이 쉽지 않은 어린 제자에게 “어서 일어나 예불 올리자. 부처님 밥 먹고 부처님 제자 되려면 조석예불에 빠지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가끔씩 공양으로 올라온 과일을 남겨 어린 행자가 먹을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행에 있어서는 좀처럼 틈을 주지 않았다. “모름지기 수행자가 먹는 죽이란 하늘이 보이고 별이 보일 정도가 돼야 한다”고 시주밥의 은혜를 누차 강조하기도 했다.

행자생활이 익숙해질 즈음부터는 공부에 대한 욕심이 생겼다. 은사스님에게 참선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니 “참선하고 싶은 이놈이 누구인고? 그걸 찾아라”고 했다. 어디엔가 있을 ‘이놈’을 찾기 위해 공부하고 또 공부했다.

그렇게 수행하고 정진한 어린 행자는 어느덧 출가 60년을 맞이했고 한국불교 신행 문화의 역사를 바꿔놨다. 사람들이 “순례문화는 선묵 혜자 대종사 전과 후로 나뉜다”고 입을 모을 정도다.

어린 행자를 올곧은 수행자로 키워내기 위해 진력한 그 스승은 현대 한국불교의 중흥조로 존경받는 청담 스님. 설명이 필요 없는 선지식이다.

법을 구하는 피안처, 道安寺

수락산이 봄을 내려 보내고 여름을 맞이할 즈음 도안사(道安寺)를 찾았다. 아침부터 세찬 비가 내렸지만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 불자들의 발걸음은 오히려 가벼워 보였다. 가파른 길을 헐떡거리며 올라가니 이미 수많은 대중들이 33관음기도를 올리고 있다. 대중들이 기도를 하는 사이 경내를 둘러봤다.

도안사는 선묵 혜자 대종사가 1976년부터 불사를 시작해 대웅전과 미타전, 천불전, 범종각 등을 여법하게 조성했다. ‘108 평화보궁 근본도량’이자 부처님 탄생성지 네팔 룸비니에서 모셔온 ‘평화의 불 시원도량’답게 대한민국 유일의 108산사순례 벽비와 평화의 불 등화대도 있다. 대웅전 바로 옆에는 33관세음보살과 18나한을 모신 일심광명각이 자리 잡고 있다.

불교는 ‘실천’ 중시… 수행정진 기본
기도 · 절 · 참선 등 자기 수행 필요
“정진하면 업장소멸…미래가 달라져”

108산사순례 ‘韓순례문화’ 새장 열어
평화 기원하며 룸비니에 범종 불사도
“부처님 평화 사상, 세계에 전해지길”

‘어리석은 중생은 홀로 있으면 외로워하고, 함께 있으면 귀찮아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수행자는 홀로 있어도 외로워하지 않고, 함께 있어도 귀찮아하지 않는다. 마치, 산봉우리의 소나무가 홀로 있어도 외로워하지 않고, 저 숲의 소나무가 함께 있어도 귀찮아하지 않듯이….’

불자들의 쉼터에 걸린 글귀를 눈에 담고 가슴에 넣었다. 곳곳을 둘러보니 소문대로 도안사는 수많은 대중이 법을 구하는 피안처였다.

오전부터 시작된 관음기도는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서도 계속됐다. 매월 둘째 주 금·토·일요일 3일간 진행되는 관음기도에는 연인원 약 1000여 명의 불자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린다. 이날도 400여 명의 대중들이 경내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기도가 끝나고 평화의 불이 봉안된 ‘평화의 진신보탑’ 앞에서 혜자 스님을 만났다. 스님은 기도의 모든 과정을 직접 주관했다. 신심(信心)과 원력(願力)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었다.

“불교는 실천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든지, 참회의 절을 하든지, 주력이나 염불을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자기 스스로 수행을 해야 합니다. 도안사에서는 관음기도뿐만 아니라 매월 초하루부터 초삼일까지는 신중기도, 매월 음력 8일에는 약사기도 및 방생, 매월 음력 18일에는 지장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넷째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108산사 영상순례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업장을 소멸하고 뜻하는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스스로 얼마나 더 노력을 하고 진실되게 열심히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현재와 미래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지극한 기도와 염불로 우리는 나쁜 운명을 좋은 삶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기도정진에 대한 혜자 스님의 관점은 확고했다. 스스로 기도하고 정진해야 보다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1월부터 시작한 관음기도는 3년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갖가지 고뇌를 받는 무량 백천만억의 중생이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듣고 일심으로 기도하면 관세음보살님은 즉시 그 음성을 관하여 원을 들어주시고 모두 성불케 한다’고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안사에서는 현세에서 괴로움을 겪는 중생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도록 중생의 소리를 마음으로 포용하는 관세음보살님을 일심으로 부르며 모시고자 관음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혜자 스님은 지난해까지 광명진언(光明眞言) 1080독송기도도 진행한 바 있다. 스님은 광명진언 기도에 대한 설명도 잊지 않았다.

“광명진언은 가피를 주시는 부처님의 진언이요, 모든 불보살님의 총주(總呪)이며, 부처님의 대광명으로 모든 소구소망을 얻게 하는 신령한 힘이 있습니다. 원효 대사가 지은 〈안심락도〉에 광명진언을 외우는 소리를 들으면 중생들의 모든 죄가 소멸하고, 무덤이나 혼백 앞에서 108번 외우면 죽음의 주인공이 죄를 벗고 극락왕생하게 되며, 환자 앞에서 1080번 외우면 과거에 의한 질병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 원효 대사는 흙모래를 앞에 놓고 광명진언을 108번 외운 뒤, 이 모래를 죽은 자의 시신이나 무덤 위에 뿌려주면 이 흙모래를 맞은 영혼들이 극락세계에 왕생한다고 하였습니다.

13면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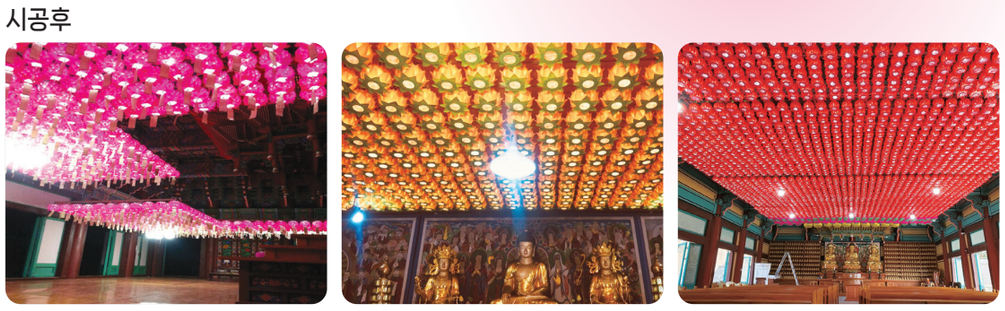
2024년 사찰고급연등 자동 승 하강시설 설치

자동 승 하강시설 각 사찰 법당 및 경내외 연등설치 공사를 주요 업무로도 하고 있습니다.

시공전



시공후



자동 승 하강 장치란 기존 또는 신축법당에 설치하여 연등을 편리하게 위 아래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자비연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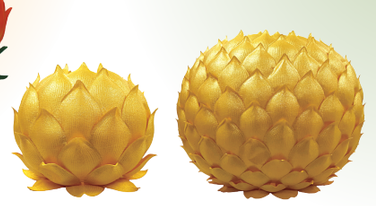
태양광 등 및 비닐만월등



칼라연등



황금등



광명연등



가까운 불교 전문상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점문의 및 안내 가야기획 02-379-2400 H.P 010-5340-7941